하나님과 사이좋은 감사바보

(디모데전서 4:1~11)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좋은 감사바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은 감사바보'

닉 오퍼맨(Nick Offerman)이라는 미국의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명보다는 론 스완슨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Parks and Recreation)이라는 드라마에서 맡았던 역할이 바로 론 스완슨입니다. 이 인물이 극중에서 참 대단한 대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대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면 친구나 동료 혹은 부부나 형제자매 등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사이좋다는 말을 첨미(chummy)라고 표현하는데 get chummy with라고 하면 ~와 사이가 좋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이좋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론 스완슨의 대사 중에 “사람들이 조금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것처럼 굴면 난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을 틀리게 부릅니다. 나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안 친한 사람이 친한 척할 때에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부름으로써 거리감을 확인시킨다는 것입니다. 틀린 이름으로 불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혀 친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 즉 사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가 좋고 나쁜 것을 알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이라는 말은 철학자들도 깊게 매달리는 개념입니다. 사이는 곧 간격입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특정 시간부터 다른 시간까지, 어떤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이 바로 사이입니다. 보통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좋다는 것은 정답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순히 규정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人間)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사람 인(人)에 사이 간(間)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에 이미 관계성 즉 사이에 대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이를 만들고 그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실패하면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따라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론 스완슨이 말했던 이름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으로 지음 받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가 인격입니다. 인격이 하는 일은 바로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실제 대상이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미지나 상대방을 가리키는 사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에 이름이 담기게 되면 그 대상과는 거리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사이입니다.

연인이라는 관계를 예를 들어봅니다. 한 남자의 의식 안에 한 여자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이 남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만큼은 남자의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억의 서랍 속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에 꺼내는 이름이 아니라 의식의 전면에 항상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은 이름과 실제 여성에 대해서는 사이가 존재합니다. 이제 마음은 이 사이 좁힘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때에 마음먹은 대로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이름과 실제의 간격이 좁혀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이가 좋아진 것이고 마음에

는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여자의 마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치될 때에 연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담지 않는 이름도 존재합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들의 이름을 기억에서 꺼내 어떠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을 의식의 전면에 지속적으로 꺼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사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품은 이름들에 대해서 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부사이, 부모자녀 사이가 이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의식의 전면에 두고 그 이름과의 사이를 좋게 유지함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에 마음에서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기쁨과 만족은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사이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는다면 마음에 담긴 이름과 자녀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알고 있어도 친한 친구가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 이름이 얼마나 담겼느냐가 문제입니다. 마음에 이름을 담았는데 그 이름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면 친한 친구가 되고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사이는 비단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의식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은 마음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음에서 붙잡은 돈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부자는 돈과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인기라는 이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기와 사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음으로써 마음에 담은 인기라는 이름과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이를 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인간에게 단 하나의 사이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한 분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앞의 34~3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

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드러내는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부부사이, 부모자녀사이, 형제자매사이, 친구사이로부터 시작해서 피조된 세상과의 모든 사이를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본래 사람이 가져야 할 유일한 사이가 하나님과의 사이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이들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경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좋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모든 것을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감사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경건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를 것도 없지만 특별히 와닿지도 않는 설명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고리타분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고무신 신고 검정 두루마기를 입고 옆구리에는 성경책을 끼시고 천천히 동네를 걸으시던 모습이나, 예배당에서 손을 모으고 굳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경건은 금욕주의를 연상케 하는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금욕주의에 대해 비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경건이랍시고 금욕주의 모습의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위선을 경건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미 이러한 자들에 대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경건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란 하나님과 사이좋은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아예 하나님과 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금욕주의를 통해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엄숙한 모양을 흉내 내는 것은 결코 경건이 아

닙니다.

신혼부부를 예로 들어봅니다. 결혼을 하여 서로에 대해 점점 친해지게 되면 스스럼이 없어집니다. 연애할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트림을 할 수도 있고 방귀를 뀔 수도 있습니다. 친해지자 가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거룩함이나 엄숙함을 가장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18절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좋은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해짐 없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겉으로만 경건을 흉내 내는 것은 오히려 화인 맞은 양심이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7절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하나님과 친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연구, 목사님들의 설교, 장로나 권사님들의 가르침, 집사님들의 권유나 상담 같은 것들에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함의 경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합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상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좋은 사람에게서 온전한 경건이 나타납니다. 9~10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았으니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비단 하나님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을 담게 되면 실제 돈에 대해 사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좁혀지기를 바라게 되고, 그 방식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돈과 사이좋게 되고 싶어 합니다. 한편 돈이라는 이름이 의식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돈과의 사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돈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면 9~10절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가 쉽게 이해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사이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할까요?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신약성경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건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사건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을까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말을 하고 들어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곧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려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먼저 관계하면 사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들과는 절대로 사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심지어 돈이든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피조물들과의 사이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론 스완슨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것처럼 굴면 난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을 틀리게 부릅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피조물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이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으로 피조물들과의 사이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검입니다. 십자가에서 배우자의 이름에 대해서 죽었고 자녀의 이름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인정함을 통해 사이를 성립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곧 마음에서 세상의 이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5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대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는 거룩해집니다.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마음은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피조물들과는 사이를 갖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이름을 담아서 사이를 성립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마음에 들어와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짐에 따라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기에 다른 이름을 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해지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이름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이름을 담지 않으니 배우자와의 사이가 성립되지 않고 사이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게 배우자로 주셨음도 알게 됩니다. 사이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에서 사이를 만들 때에는 사이가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에 사이가 좋기를 바라고, 부모자녀 간에 사이가 좋기를 기대합니다. 돈에 대해서도 돈이 잘 벌림을 통해 돈과 사이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 사이는 마냥 좋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빠지기 일쑤입니다. 부부간에 사이가 나빠서 걱정하고, 자녀와 사이가 나빠서 걱정합니다. 돈이 많은 재벌들일지라도 매일 돈으로 인해 걱정합니다. 애초에 온전할 수 없는 사이를 만들었기에 그로 인해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충만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사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상태가 바로 경건입니다.
이렇게 경건을 유지할 때에 세상과의 관계 또한 온전해집니다. 비록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섯 번이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사이가 좋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먼저 피조물과 사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예로 들어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하늘이 열림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담기를 소망했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가득 채우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사는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 들인 것입니다. 이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과 사이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자 자신을 돌로 치는 상황에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만들라고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젖혀두고 피조물들과의 사이 만들기를 우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사이를 만들었기에 어떠한 감사도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신혼 때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살다보니 더 친밀해지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실망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정부처럼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깁니다. 너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돈 있고 친구들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담고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남편에게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규약이 의무적인 끈에 묶여 있을 뿐 남편과의 사이 자체는 희미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에 사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면 변화는 생겨납니다. 기쁨과 만족이 결코 배우자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붙잡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이를 좁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가 단순히 결혼이라는 의무에 묶인 대상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내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나와 사이좋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동안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생겨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이를 만들 때에 자녀와의 관계는 온전해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자녀에게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공부하겠다고 애쓰는 자녀가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기쁨과 만족을 바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이를 맺고 있는 동안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사는 이유는 내 몸부터 시작해서 피조물들과 사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창조주가 들어오실 수 있는 크기의 마음 공백을 피조물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마음과 피조물들의 사이를 끊는 검입니다. 사람 사이를 끊고 돈에 대한 사이를 끊고 권력 등에 대한 사이도 끊어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사이를 끊는다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도 참여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피조물과의 관계는 거룩해집니다. 버릴 것이 없다고 한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짐을 통해 내 처지에 포함된 피조물들을 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검으로 피조물에 대한 사이를 끊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랑과 감사가 가능해짐을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 감사밖에 모르는 감사바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